

월요일:저녁 편집회의 및 신문평가
화, 수요일:원고청탁 및 취재
목요일:1차원고 마감
금요일:최종원고 마감 및 기사편집 철야 작업
토요일:조판,
대학신문사의 일부인 생활의 기본적인 틀이라 할수있다. 물론 각 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신문사들의 일주일의 생활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정속에서 대학신문 기자들은 수업도 들어야 할것이고 신문사의 주어진 일정대로 생활도 해야 한다.
또한 그 신문제작의 과정은 어떠한가? 취재하라, item잡으라, 원고 청탁하라. 그야말로 대학신문 기자들의 생활은 말그대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것이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마찰 또한 적지 않아, 정신적인 피로 또한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문화의 창달과 학생대중의 인식수준을 이끌어가는 대학사회내의 문화적, 사상적인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서의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반드시 올바른 사실만을 알려내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이시대의 전반적인 고민을 이끌어가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대학

신문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한순간 공기의 파장으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방송보다, 일년이면 2번정도 밖에 받아보기 힘든 교지나, 영어로 되어 있는 영자신문보다도 일주일에 한번 활자화되어 남겨지는 대학신문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정말 학내의 그 어떠한 매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인식 역시 같은 맥락을 유지해 왔다 할 수 있다. 물론 경희대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대학주보'라고 하는신문이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학주보가 오늘날까지 지령 1천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학주보를 비롯한 대학신문들은 그간 여러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과정중 대학신문의 내

용종 변화되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입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의 변혁운동에 대한 주장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변혁논리 만이 대학신문의 목소리는 아니며 대학신문도 이제는 그렇지 않은 다수 대학인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

은 어땠던가, 항상 불의에 맞서 최선봉에서 이의 부당성에 항거 하여 왔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학, 그리고 그 구성원인 대학생 아니 청년학생의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그 항거를 이끌어 내고 주동시켜 온 것이 바로 다름아닌 대학신문이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신문의 역할이

에 맞게 이를 설명해 넓과 동시에 올바른 그리고 애정어린 비판 속에서 학생회 강화 그리고 변혁운동의 발전에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학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잘못 이해하는 수가 종종있다. 그것은 대학신문 기자들을 대할때 변혁운동을 위해 같이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무엇보다 대학언론에 종사하는 선전일꾼들과 학생회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의 대화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몇몇 학교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협의회'를 구성해 이의 대표가 총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결합하거나, 일년에 2~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경우 각단위언론사의 작업 하중에 비한 사람수에 있어서 '언론협의회'를 줄이고 운영해 나가기가란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의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서로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모임의 단초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제도권에서는 앞으로 있는 선거로 인하여 더욱더 교묘하게 학생운동 직영을 분해시키려 할 것이다.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이다.
경희대학교 청년 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써 이를 막아내고 이를위해 학생회는 학생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가며 대학언론사는 그 나름대로의 선전선동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과정에서 이들 상호간의 굳은 연대의식과 이해만이 진정한 정의의 발전과 학생운동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임을 자각하고 쌍방은 하루속히 그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엄 홍 준
(본보 취재부장)

대학언론의 양날 '변혁과 비판'

80년대후 대학신문의 역할 변화요구돼 '언협' 구성과 대화로 단결·연대의 틀 마련

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 대학신문이 소수 운동권의 목소리만을 전할수는 없으며 대학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도 밝혔듯이 대학언론은 문화 사상적인 면에서 항상 학생대중들을 올바르게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한 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 하는 것이 대중투쟁의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84년 학원 자율화조치 이후 그 역량이나 능력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각단위의 학생회에 그 자리를 넘겨주고 부분계열운동의 일환으로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선전선동과 과학사회 강화에서 변혁운동에서의 대학신문의 역할을 찾으려 하고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변혁논리와 무조건적인 학생회 찬양은 진정으로 이방의 변혁운동을 발전시키는 길은 아니다.
대학신문은 항상 학생대중의 이해와 정서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 내으려는 노력이 대학신문 기자들을 단지 자신들의 활동을 선전해내는 기능인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학신문에 대한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국, 교지등 모든 대학언론사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고뇌·기상 엮어낸 10대 특종



대학주보가 지령 1천호를 맞이하였다. 그 숨은 세월속에서 대학주보는 대학인의 고뇌·갈등을 언제 어디서나 신문에 담고자 기자로서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다. 가늠치만 날카로운 필봉으로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오늘에까지 왔다. 이에 그동안의 취재기사에서 10가지의 기사를 선정해 대학주보에 다시금 담아본다.
< 편집자 >



대학주보는 1955년 5월 12일 창간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일들을 보도하는데 있어 경희인의 기상을 펼치고 당시 대학인의 고뇌와 갈등을 표출하는데 끊임없는 취재보도의 열정을 보였다. 102호(1960년 5월 20일자)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의 부정을 고발하는 경희인 분노의 함성을 1면 '클로즈업'란에 사진과 함께 특별보도하였으며, 4월-19일, 오랫동안 누적이된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던 학생혁명에 참가하여 과감히 투쟁하다 민주제단에 젊은 피를 뿌린 경희의 건아, 이기태군을 추모하며 이기태열사 위령제를 엄수한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사진과 함께 게재, 정의보도에 앞장을 서기도 하였다.
1964년 3월 25일자 216호는 박정희정권의 폭압속에서도 '한·일 회담 굴욕외교 반대' 시위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여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대학신문의 생명성을 들어내기도 하였다. 당시 게재기사를 잠시 살펴보면, '한·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소리가 전국적으로 드높아지고 있는 25일 본 대학교의 3천

여 경희 학생들은 상오 11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평화선 사수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출발 정량리를 거쳐 동대문과 종로를 경유 시청앞에 도착하여 연좌한 후 국회의장과 청와대에서 다시 연좌, 하오 세시반에 해산하였다 "고 되어있어, 경희인의 기사를 다시금 느낄수 있기도 하다.
1969년은 3선 개헌통과에 따른 국내사회의 혼란으로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학주보는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폭압에 항거하는 경희인의 상을 담기에 소홀하지 않았다. 억압된 언론통제속에서도 당시 경희인의 고뇌와 갈등,변화를 토로하는 좌담기사를 대학주보에 게재함으로써 연좌나 어떤 상황에서도 경희인의 진실된 모습을 담기위해 대학주보는 씁쓸한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70년대는 대학신문사의 암흑기라 불수 있다. 학내에는 경찰들이 상주하였으며, 대학신문들은 최악의 사전 원고 검열의 폭정이 있었기에 정치사회적인 기사를 게재할경우 신문발행뿐만 아니라 제작이 중지되기 때문에 대 정치·사회적인 기사는 일절 보도할

수 없었으며 학내기사에 국한되었고, 학내기사가 시위관련기사는 일절 보도 금지되었다.
1980년은 결코 잊을수 없는 비운의 해이다.
1979년 10.26사건이 일어난 후 전두환군부는 정권탈취를 위한 작업을 해나가며 계엄을 선포, 80년 당시 109일간의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학주보는 대학인의 민주화·투쟁 모습을 결코 놓치지 않고 보도하였다. 683호(1980년 5월 13일자) 1면에는 대정부 학내집회시위상황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일부가 삭제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과감히 펼쳐서 서울소재14개 대학신문 편집장(본보포함:당시 편집장 이철우)들의 시국선언문을 게재, 대학신문 기자들이 언

론사명의 정신으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또한 극심한 언론통제속에서도 77년 10월에 발생한 전남 함평군 고구마사건과 79년 5월의 안동 카톨릭 농민회 사건을 683호에 함께 다루어 70년대 한국농민의 실상을 특별기획 취재보도하여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분노와 울분을 대변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1984년 학원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학원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하였다. 801호(1984년 4월 16일자)를 보면 학원

기사 3면에 실린 우리사회의 비합리적 구조를 적절히 비판한 시리즈 유신-이방의 열어붙은 역압의 통치론 중 계층제도가 쓴 수권과정의 정당성문제를 다룬 기사였다. 5공정권의 창출비화를 다룬 이 문제의 기사는 기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일부삭제된 끝에 뒤늦게 발간은 되었지만 삭제된 원고부문을 반간으로 처리하였다. 이 빈 공간은 대학주보 기자들의 눈물이 가득 고인 자리였고 당시의 기자들은 이 빈 공간을 보면 아직도 분노를 참지 못한다 한다.
투쟁연합 발족작동 당시 사회적 변기 상황을 세밀히 다루어 대학주보기자의 민첩한 기자근성을 마음껏 펼쳐주었으며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일반 경희인들의 공감대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1987년은 학생운동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정리된다. 당시의 전두환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여, 다시금 정권을 폭압

은 거의 '폭력정권타도'의 시위기사로 채워졌다. 이로보아 당시 사회상황의 혼란이 어떠한것임을 짐작할수 있으며 대학주보사 기자들의 언론사명이 얼마나 투철했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대학주보사는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의 타 대학신문사와 함께 자유언론의 의지와 열정을 담은 공개서한을 문교부장관앞으로 보내, 대학언론자유와 집회소신 부담한 탄압과 검열등에 관해 즉각 중지할것을 요구했으며 이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언론자유쟁취를 위한 신문제작거부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1988년 8.15남북학생회담을 통한 조국통일운동에 있어서는 입수경 학우의 방북이 사회적 큰영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시 대학주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의 공동기자단에 참가, 통일운동의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과 민족화해 대단결의 초석을 다지는 원고를 실기도 하였다. 90년에는 본교 박성희(음대 성악)양이 방북을 이취 본교는 또다시 통일운동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지난 3당합당등 급적급진한 사회적 변혁기를 거듭하면서 대학

- ①3. 15 부정선거 규탄시위 보도
- ②4. 19 이기태 열사 위령제
- ③한일회담 굴욕외교 반대 시위기사
- ④폭정속에서도 3선 개헌 반대 의사 표명
- ⑤80년, 언론암흑기에 시위기사 보도

- ⑥학원자율화조치 긴급보도
- ⑦86년 건대항쟁 밀착취재
- ⑧6. 10항쟁 취재
- ⑨87년 언론자유쟁취 '기자성명서' 발표
- ⑩88년 8. 15 남북통일 학생회담 취재

놓치지 않고 보도하였다. 683호(1980년 5월 13일자) 1면에는 대정부 학내집회시위상황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일부가 삭제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과감히 펼쳐서 서울소재14개 대학신문 편집장(본보포함:당시 편집장 이철우)들의 시국선언문을 게재, 대학신문 기자들이 언

론사명의 정신으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또한 극심한 언론통제속에서도 77년 10월에 발생한 전남 함평군 고구마사건과 79년 5월의 안동 카톨릭 농민회 사건을 683호에 함께 다루어 70년대 한국농민의 실상을 특별기획 취재보도하여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분노와 울분을 대변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1984년 학원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학원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하였다. 801호(1984년 4월 16일자)를 보면 학원

국면으로 이끌어갔다. 박정희고문 치사사건이 터지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대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이어졌으며 6.10 범국민규탄대회에는 운곡민의 참가로 이어져 결국 노태우의 6.29항복선언을 쟁취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학주보 883호(5월 4일자)부터 888호(7월 27일자)까지의 지면

주보는 이제 37년의 연륜과 일천호라는 지평을 이루기까지 온갖 시련을 겪어왔다. 초창기 60년 70년대의 청계기를 거쳐 80년대 현실인식으로 이어지면서 대학언론으로 대학주보가 담보해 나아가야 할 것은 대학사회의 흐름과 사회변화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대학주보는 민중의 목탁으로서의 신문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유언론 실현을 계속할 것이다.

박용집(본보 동문)



꿈이있는도전의세계-휴먼테크

「축」 창간 37주년 지령 1000호



技善說!

인간의 마음이 본디 착하기에 인간이 만든 기술 또한 인간을 위한 선한 것임니다.
벨이 전화를 발명한 지 116년, 전화가 없었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지 115년, 오디오 기기가 없는 우리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나온 지는 46년, 컴퓨터가 없는 우리의 생활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선한 이들의 노력이 선한 오늘의 기술로 이어져 우리의 삶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첨단의 기술로 인간행복을 실현시키는 휴먼테크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이 진정한 기술이라는 '技善說'의 믿음으로, 21세기의 벨, 21세기의 에디슨이 되기 위해 자신의 꿈과 세계를 다듬는 당신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